

# 평양의 기독교 공동체와 송실전문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기계창과 과학기술 관련 학과 설립 시도를 중심으로—

오선실\*\*

## 〈차 례〉

1. 들어가며
2. 기독교 지도자 양성과 과학기술 교육
3. 기계창과 학제 밖에서 이뤄진 기술 훈련
4. 근대산업도시 평양과 송실전문학교의 학제개편
5. 나가며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근대전환기 근본주의 교리를 고수하며 평양이라는 기독교 문화가 잘 베어든 지역에서 기독교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했던 복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대학, 송실전문학교에서 이뤄진 과학기술 교육의 내용과 의의를 추적한다. 서북지역을 넓게 포괄하는 독자적인 기독교교육체계를 구상한 송실대학은 기독교 신자들에 한정해 입학을 허용하고 신학교 입학에 필수적인 기독교교리와 자유학예에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지역사회에 후원과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송실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기계창을 함께 건립해 운영해 학생들에게 기술을 교육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기술 근로를 통해 지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계창은 근면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을 기른다는 송실대학의 설립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설 기관으로 이후 학교 운영 및 커리큘럼의 정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기계창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는데, 기계창에서 공급하는 단조, 주물, 유리, 철공 등은 서구사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01042723)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회에서는 이미 오래된 기술들로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당시 평양에 꼭 필요한 기술들로 지역사회가 유학비를 지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유학 보내 시급히 배워야 하는 기술들로 지목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1920~30년대 이학과 설립을 시도하며 송실대학이 구상한 과학기술 교육은 사실 화학공학 분야에 특화된 것이었다. 이는 평양이 서북지역의 중심 산업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이었다.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저어하던 총독부가 인가하지 않음으로써 이학과 설립은 무산되었지만, 농학과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송실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

[주제어] 송실전문, 기독교대학, 기계창, 오래된 기술, 과학기술교육

## 1. 들어가며

과학기술 및 실업 교육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소위 “문명화 사업”, 동화정책을 추진한 조선총독부는 물론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활발히 교육 사업을 펼친 서양인 선교사들에게도 중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특히 선교사들은 “기독교문명론”에 토대해 기독교를 우수한 서구 문명의 정수로 규정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하고자 했는데, 과학기술 교육은 서구 문명을 탄생시킨 합리적인 사고체계를 가르칠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강조하는 근면, 성질, 자조 등의 덕목을 기르는데도 유용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기술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과학기술 교육의 목표와 의의는 무엇인가 등 실제 학제구성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조선총독부와 선교사들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고, 선교사 집단 내부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 혹은 같은 교파 안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었다.<sup>1)</sup> 결국 과학기술을 실업교육으로 제한한 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관철되고, 선교사들에 세운 학교에서도 순수과학보다는 실업교육이 강조됐지만, 식민지 시기 미션스쿨들이 과학기술 교육의 주된 공간들의 일부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식민지 시기 “종합 과학 교육 기관”을

1)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시세와 민도”가 과학기술 이론을 수용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근배, 「식민지시기 과학기술자의 성장과 제약: 인도·중국·일본과 비교해서」, 『한국근현대사연구』 8,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163~165쪽.

표방하며 설립된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 대한 연구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는데, 나일성은 실업 교육을 포함한 연희전문학교의 커리큘럼이 실업 교육을 강제한 총독부가 식민지 교육 정책이 관철한 결과일 뿐 아니라 애초부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가 순수 과학과 실업 교육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음을 보였다. 반면 전찬미는 학교를 둘러싼 총독부와 선교사들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상호작용에 주목해 연희전문학교 수물과가 종교교육 금지와 과학교육 허용을 맞바꾸는 전략으로 총독부의 실업 교육 정책이 더 이상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sup>2)</sup>

이렇듯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두 기독교대학 중 하나인 서울의 연희전문학교가 총독부와와의 갈등 속에서도 수물과 개설을 관철한 데 비해 평양에 기반을 둔 기독교대학, 송실전문학교는 문학과만을 갖춰 과학기술 보다는 문과 교육을 중심에 두었다고 평가된다.<sup>3)</sup> 이에 대해 김근배는 학문 전반을 아우르는 자유교양대학인 리버럴아트(Liberal Arts) 칼리지를 지향한 송실대학이 교양교육의 일부로서 결코 과학교육을 등한시 하지 않았으며, 1920년대 이학부 설립 시도와 좌절, 1930년대 농학부 설립 과정에서 송실전문학교는 미국 혹은 일본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왔으나,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연구자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냈음을 보였다.<sup>4)</sup> 또한 이경숙은 송실전문학교의 교수진이 기독교에 기반을 둔 송실 연고자, 서북지역 출신, 유학 경험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송실전문학교가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이학자들과 일본에서 수학한 농학자들을 평양으로 모여들게 할 만큼 상당한 기반을 제공했음을 확인했다.<sup>5)</sup> 또한 송실대학은 과학교과서를 한글로 번역 하는 작업에서

2) 나일성, 『서양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전찬미, 「식민지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설립과 과학 교육」, 『한국과학사학회지』 32-1, 한국과학사학회, 2010, 43~67쪽.

3) 송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민족과함께한 송실 120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2017, 96쪽.

4) 김근배, 「송실전문과 과학기술자들-이학과와 농학과 개설, 졸업생의 대학 진학」, 『한국근현대사연구』 9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102~131쪽.

5) 이경숙, 「일제강점기 송실전문학교 교수진의 구성과 네트워크」, 『사회와 역사』 130, 한국사학회, 2021, 81~132쪽.

도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설립자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가 직접 『턴문략해』(1908)를 번역했는가 하면, 숭실학교에서 생물학을 직접 강의한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는 『동물학』(1906), 『심리학초권』(1908), 『식물학』(1908)을 번역 출판했다. 이들 과학교과서는 한국의 근대 교과서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초가 된 험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일부로 포함되어, 과학교과서로서 모범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숭실대학 외에 다수의 사립 학교들에서 중요 과학교과서로 사용되었다.<sup>6)</sup>

이상의 연구들은 식민지 시기 숭실전문학교가 과학기술 교육이 이뤄진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과연 식민지 시기 숭실대학이 학문의 연구 공간이자 훈련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 학제를 얼마나 제대로 갖추었는가 혹은 과학기술 인력을 얼마나 배출했는가를 질문하고, 다소 경직된 평가 기준에 견주어 그래도 이만큼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정량적인 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학과 설립 실패와 농학부 설립 성공, 혹은 그 성과와 한계라는 논의를 답습하도록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대학수준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분야 보다 많은 물적 토대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미주리의 자유교양대학 파크 대학을 모델로 숭실대학을 설립했을 때 이 학교의 목표는 분명 순수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를 길러내는데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숭실대학은 과학기술을 중요 교과로 포함했고, 오래된 공업기술에 토대한 자조사업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포함했다. 또한 숭실대학은 기존 문학과에 더해 학제 확대·개편을 시도하면서 다른 여타 분야들을 모두 제쳐두고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왜 자유

6) 윤정란,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식물학의 도입과 확산의 토대 구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0, 215~251쪽; 오선실,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생리학의 수용과 변용: 애니 베어드 역, 『심리학초권』(1908)과 안상호 역, 『신원생리학교과서』(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한국학연구소, 2021, 343~368쪽; 오지석,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 평양 숭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61~374쪽; 허재영,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험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의」, 『어문학』 147, 한국어문학회, 2020, 239~262쪽.

교양대학을 지향한 숭실대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물질,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과정의 중요 부분으로 포함하고자 했을까? 과연 숭실대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과학기술 교육의 목표와 이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연구는 근본주의 교리를 고수한 숭실대학이 평양이라는 기독교 문화가 잘 베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구현하고 했으며, 그를 위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토착교회 형성을 목표로 하는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신앙공동체가 평양 지역에서 거둔 유래 없는 성공을 바탕으로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까지 설립하는 과정과 숭실대학의 학제의 중요한 일부로서 포함한 과학기술 교육의 실재를 분석한다.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 토대한 평양칼리지, 숭실대학은 여러 정치세력, 종교단체들이 경쟁하는 도시, 서울에 건립된 대학들과는 달리, 총독부와 같은 거대한 식민권력과 타협하기 보다는 분리 혹은 독자의 길을 걷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숭실대학의 독자 전략은 지역사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성장하는 산업도시 평양에서 숭실대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계창은 공업 기술을 제공하는 일종의 공업 상점으로 자못 새로운 것이 없는 오래된 기술들을 다뤘지만, 당장 평양 지역에 필요한 공업 소비재들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완숙한 기술자로 훈련했다. 이는 기존 한국의 지식인 사회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생산 기술과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1920-30년대 숭실대학의 학제 개편 시도는 평양이 서북지역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서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숭실전문학교는 이과를 표방했으나 사실 화학공업에 특화된 교수진을 구성했고, 이후 조선총독부의 인가 거부로 이과 설립이 좌절됐을 때는 지역사회의 공명하며 농과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 2. 기독교 지도자 양성과 과학기술 교육

숭실대학은 무엇보다 청일전쟁 이후 가장 성공한 선교지이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토착교회와 독자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잘 만들어진 평양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성장했다.<sup>7)</sup> 이러한 평양은 곧 숭실대학의 공간적 배경일 뿐 아니라 존립 기반 그 자체였다. 토착교회 형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토착 목회자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기초해 대학은 지역민 스스로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통해서만 설립될 수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sup>8)</sup> 베어드는 1901년 평양에 부임한 후 평양학당을 중등교육 수준의 숭실학당으로 발전시켰고, 1906년에는 감리교 등 다른 교단과 연합해 숭실학당을 연합칼리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학”인가를 받아 숭실대학으로 학제를 시작할 수 있었다.<sup>9)</sup>

숭실대학은 미국의 기독교 종파들이 각기 독자적인 교회공동체 구축을 위해 운동처럼 설립한 소규모종파칼리지, 자유교양대학을 모델로 설립되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장로교 소규모 종파칼리지, 하노버대학(Hanover College)을 졸업하고 맥코믹신학교(McMormic Theological Seminary)에 진

7) 기독교의 성공적인 전파 이후 평양은 공간적으로 재배치되어, 기독교인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조선인들의 주거지역이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병원이 위치한 산지대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대동강 연안으로 나뉘었다. 윤정란, 『근대전환기 지역공동체의 변화: 기독교와 접촉한 평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171~207쪽.

8) 토착교회론과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 대해서는 옥성득, 『한국 장로교의 초기 선교정책(1884-1903) - 19세기 “토착기독교론”의 한국 수용 배경과 발전에 대한 재검토』, 『한국기독교와 역사』 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117~188쪽,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상에 관해서는 류대영, 『한국 기독교 역사 재검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66~126쪽, 네비우스 전략과 숭실대학의 교육이념에 관해서는 정준영,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과 미션스쿨: 중·고등교육의 경우』, 『사회와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213~245쪽 참고.

9) 대한제국시기 ‘대학’으로 인가 받은 숭실대학은 식민지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령을 따르지 않아 ‘대학’이 아닌 사립각종학교로 남아 있다가 1926년 조선총독부가 문과 설립을 인가하면서 숭실전문학교로 인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본 학교가 일찍부터 실질적으로 대학교육을 수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1926년 이전까지는 숭실대학으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인가 받은 대로 숭실전문학교로 칭한다.

학해 목회자가 된 설립자 베어드를 비롯해 미시간주의 감리교계 종파칼리지, 앨비온대학(Albion College) 출신으로 물리학을 가르친 벡커(Aurthur L. Becker)와 천문학을 담당한 루퍼스(Will Carl Rufus) 등 설립초기 선교사들로 구성된 교수진 다수가 종파칼리지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었다. 즉 자유교양대학은 교회공동체가 세운 모범적인 대학의 형태로서 그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형태였다. 특히 숭실대학은 미주리주의 “일하면서 공부하는” 소규모종파칼리지, 파크대학(Park College)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는데, “종교교육과 교양교육의 조화”를 지향하는 자유교양대학으로서 숭실대학은 서구 지식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학문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기계창과 같은 자조기구를 설립해 학생들의 노동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sup>10)</sup>

숭실대학은 설립초기부터 서구식 교양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계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고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선교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9명의 교수진 및 강사진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을 과학기술 교육에 배치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감리교계 선교사이면서 이후 이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는 완숙한 과학연구자 벡커와 루퍼스가 수학과 더불어 각각 물리, 천문 분야를 담당했고, 나머지 과학기술 일반, 지질학과 생물학, 생리학에 대한 강좌는 지질학을 전공한 북장로교 선교사 모우리(Eli Miller Mowry)와 생물학에 조예가 깊었던 애니 베어드가 나눠 맡아 개설했다. 또한 숭실대학은 기계창에 대한 운영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책임자로 기술사이자 독실한 북장로교계 교회의 일원이었던 맥트머리(Robert M. McMutrie)를 특별 초빙해 기술 훈련에 만전을 기했다. 이렇듯 설립초기 선교사들의 개인 역량에 의존한 숭실대학의 과학기술 강좌는 선교사들의 상황에 따라 종종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는데, 루퍼스가 질병치료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1910년에는 다른 강사를 구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

10) 숭실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민족과 함께한 숭실 120년』, 96쪽; 숭실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평양숭실 회고록』, 350쪽; Horace H. Ung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p. 127. 소규모종파칼리지와 자유교양대학(Liberal Art School)에 대해서는 정준영, 앞의 글, 233~234쪽; 김근배, 앞의 글, 104~106쪽 참조.

치 않아 고등수학 강의가 끝내 열리지 못했고, 교과 연합대학을 둘러싼 갈등으로 감리교 선교사 루퍼스와 베커가 연희전문으로 옮긴 후에는 한동안 수학과 천문학 수업을 담당할 교수를 찾지 못해 교수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sup>11)</sup>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숭실대학은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무엇보다 서구 근대 과학기술지식 생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험, 실습을 통한 과학기술 지식 연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험실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당시 베어드가 해외 선교본부에 보낸 기금 요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숭실학교는 이미 확보된 1만 달러로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고 있으며, 이후 신축 건물에 들어갈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 신축 건물에 들어갈 여러 장비들 중에는 책상 및 의자, 시계, 종, 타자기, 전화 등 일반 설비도 있었지만, 지도, 각종 차트, 지구본 등 각 강좌에 필요한 교구들, 그리고 과학기술 실험실을 꾸미기 위한 실험 장비들이 큰 비중으로 포함됐다. 특히 이 필요물품 목록에는 정밀시계, 온도계, 기압계 등 각종 정밀 측정 장치와 더불어 분야별로 열, 빛 전기 및 고급 기계학에 필요한 각종 장비, 화학 실험을 위한 화학물질 및 실험용기, 지질 관찰 실험을 위한 지진계, 천문관찰에 사용할 망원경, 그리고 생물학 수업에 필요한 생물 슬라이드 모음집과 학생용 고성능 현미경을 망라하는 요청을 적시해 향후 숭실대학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실험실을 갖춰갈 계획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과학기술 실험실은 그 설비 구축 뿐 아니라 운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숭실대학은 실험실 운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했는데, 베어드가 이사회에 보낸 1913년 보고서에 따

11) 루퍼스와 베커는 선교사로서 교육사역을 수행하면서도 과학자로서 학문 연구를 지속해 미시간대학(Univ. of Michian)에서 각각 1915년 천문학 박사학위와 1921년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우리는 1918년 자신의 출신대학이었던 자유교양대학 우스터 칼리지(College of Wooster)에서 지질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지질학 교수로서 전문성을 더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평양숭실 역사자료집 IV 선교자료 I-PCUSA 자료를 중심으로』, 2018, 24~27쪽, 41~42쪽.

12) 위의 책, 32~34쪽.



르면, 당시까지 많은 실험 장비들이 구비되어 실제 실험 수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비를 구비해야했고, 특히 실험실 조교를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했다. 나아가 베어드는 장기적으로 기계장 확충을 위한 5천원, 관측소 및 과학관 건립을 위한 각각 1만원과 4만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 같은 재정 곤란 때문에 송실대학은 1913년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전공수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전공 담당 과학기술 교수들도 자신의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송실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송실대학이 실험조교 인건비가 필요한 만큼 과학기술 실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서 담당 교수들에게 연구 시간을 보장할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3)</sup> 이러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실험실의 운영은 선교본부의 제한된 지원만으로는 늘 부족했던 만큼, 송실학교는 해외 기독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평양 지역사회의 지원과 후원에 호소해야했다.<sup>14)</sup>

이렇듯 과학기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송실대학의 개설 강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매년 25단위 교과과정이 개설되었고, 그 중 성경이 5단위로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수학, 물리과학, 자연과학을 과학기술 분야로 묶어보면, 매년 평균 10단위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표1] 송실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함께한 송실 120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102쪽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 성경<br>윤리학 | 신약사 1<br>갈라디아서/에베소서 2<br>시편2 | 소예언서 3<br>로마서 2 | 레위기 3<br>히브리서 2 | 다니엘서 2<br>요한계시록 3 |

13) 위의 책, 45쪽, 47~48쪽.

14) 기계장 관리 및 기술 담당 강사 맥머트리가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의 목사, 마르퀴스 부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고, 이후 송실대학 3대 학장을 된 북장로교 선교사 메렛의 주선으로 맥코믹 여사(N. F. McComick)이 학교 운영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위의 책, 31쪽.

|       |               |                 |                 |        |
|-------|---------------|-----------------|-----------------|--------|
| 수학    | 대학 대수 4       | 삼각법 2<br>입체기하 2 | 측량술 3<br>분석기하 2 | 미적분 3  |
| 물리과학  | 열/광학 3        | 자기학/전기 3        | 정성화학 3          | 정량화학 3 |
| 자연과학  | 비교동물학 3       | 발생학/생물학 3       | 천문학 3           | 지질학 3  |
| 역사학   | 미국사 3         | 영국사 3           | 20세기사 2         | 인물전기 2 |
| 인문학   | 윤리학 혹은 도덕철학 3 | 정치경제학 혹은 교육학 3  | 논리학 3           | 심리학 3  |
| 어학    | 영일 3          | 영어 3            | 영어 3            | 영어 3   |
| 웅변/음악 | 음악 1          | 웅변 1            | 연설 1            |        |

그렇다면 숭실대학은 왜 이토록 많은 부분을 과학기술 교육에 배치했을까? 물론 이 수업들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현대 과학기술 분야를 소개하고 개설하는 수준으로 수준 높은 과학기술 연구를 추구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대과학의 전 분야를 고르게 아울러 대학교육을 받은 교양인으로서 현대 서구 지식 조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렇듯 서구지식체계의 근간으로서 과학기술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 데에는 과학적 사고의 합리성을 신뢰하는 베어드와 그의 부인 애니 베어드의 개인적인 성향도 반영된 듯하다. 베어드의 셋째 아들로 그 역시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처드 베어드에 의하면, 베어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천문학에 애정을 가져, 그의 형이 과학실 조성을 위해 미국에서 보내준 제법 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기를 즐겼다. 애니 베어드는 생물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어렵게 실험실용 해골을 기증받고 대학에 뼈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동안 자신의 집 부엌에 걸어들고 아이들에게 뼈의 이름을 모두 가르쳐주었다.<sup>15)</sup>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듯 숭실대학에서 교양으로서 충분한 과학기술지식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토착교회 의 주역이 될 “교회청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을 “통일되고 완전한 교육시스템”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베어드의 교육 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sup>16)</sup>

15) 리처드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 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6, 159쪽, 173쪽.

베어드는 숭실대학이 서북지역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기독교교육체계를 건립한다는 목표에 부합해야한다고 보았는데, 무엇보다 숭실대학이 기독교를 위해 헌신할 일꾼, 특히 향후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기독교인 지도자를 훈련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학교육을 비기독교인에게 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본 세속주의 입장과는 달랐다. 베어드는 이러한 입장에서 세속주의 교육을 다소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는 “자선, 박애, 다 좋은 덕목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든 전도”이고, 선교사가 “교육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불충분한 인원을 빼내는” 이상으로 교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느라 학교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줄어들게”되면, 결국 “기독교의 적대자, 기껏해야 기독교에 무관심한 친구”를 만들어 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사역 초기 베어드는 감리교 학교인 배제학당이 영어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을 유인했던 것과 달리 초급학교에서 영어교육 실시를 반대했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 매력적인 근대 교육은 실제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갈 충분한 기회를 빼앗고 무엇보다 교회의 분위기를 헤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sup>17)</sup> 베어드에게 이상적인 학교란 일차적으로 토착교회를 형성, 유지, 확장하기 위한 토대로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이어야 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학교가 운영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모두 활발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선교사의 임무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베어드의 입장이었다.<sup>18)</sup>

베어드는 교육선교활동의 단계를 셋으로 구분해, 그간의 성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많이 갖춰졌고, 3단계가 될 진정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현재 한국의 교육 선교활동에서 꼭 필요한 활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

16) 『연합대학교보고서』, 1910~1911, 정준영, 앞의 글에서 재인용, 232쪽.

17) 베어드, 김용진 옮김, 『윌리엄 베어드 선교 리포트』 II,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117~182쪽; 류대영, 앞의 책, 116~117쪽.

18) 베어드, 『우리의 교육정책』, 1897, 김용진 옮김, 『윌리엄 베어드 선교 리포트』 I,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6, 220~221쪽.

서 현시점에서 교육사역이 집중해야하는 사업은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등 또는 대학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특히 베어드는 교육자는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이들 중에 공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독교 대학은 토착교회의 지도자, 수준 높은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 뿐 아니라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다방면의 지식 체계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었다.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생물, 지질 각 분과별 과학기술 지식들과 실험적 방법론은 유능한 교사가 당연히 알아야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 지식으로 서구 역사와 철학, 논리학, 경제학, 심리학 등 각 분야의 인문지식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sup>19)</sup>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었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까지 기독교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교사들 저마다 다른 구상들을 가졌다. 베어드는 평양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설립된 대학숭실대학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서울에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감리교선교사들은 비기독교인들 포함하는 세속교육을 주장했고, 장로교의 교세가 센 평양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서울을 선호했다.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도 서울에서 활동해온 언더우드, 에비슨은 서울에 비기독교인들 포함하는 새로운 연합대학을 건설하는 안을 선호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뉴욕에 위치한 선교지부가 서울에 새로 기독교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며 숭실대학은 기존 교과 연합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초급대학으로만 운영하기로 결정됐다.<sup>20)</sup>

19) 정준영은 토착교회 지도자를 위한 대학교육이라는 교육사역의 목표가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 토대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숭실대학의 커리큘럼은 서구의 역사와 지리를 포함했지만, 한국의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 어느 대학의 커리큘럼과 다를 바 없었다. 정준영, 앞의 글, 235~236쪽.

20) 교과 연합대학을 둘러싼 갈등과 사태의 진전에 대해서는 안종철, 『아더 베커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한국기독교와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1, 249~274쪽; 리처드 베어 드, 앞의 책, 271~321쪽; 류대영은 베어드와 같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서울에 세속교육을 실하는 대학설립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로 두 사람이 각각 대도시의 종합대학인 뉴욕대학과 토론토대학을 졸업해 베어드와 다른 경험을 가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대영, 앞의 책,

일련의 사태 끝에 베어드는 교육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숭실대학은 근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여러 정치세력이 경쟁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세속교육을 지향한 다른 미션스쿨들과는 다른 전략과 선택을 가졌다. 숭실대학은 대립하는 거대 식민권력인 총독부와 타협하기 보다는 독자 노선을 걷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결국 1925년까지 종교수업 중단을 요구하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대신 각종사립학교로 남아있었다.<sup>21)</sup> 이러한 선택은 학생층원 문제에서나 학교의 재정문제에서나 많은 어려움을 수반했다. 숭실대학은 평양 지역사회에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숭실대학은 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 3. 기계창과 학제 밖에서 이뤄진 기술 훈련

교육기관으로서 숭실대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설립초기부터 학생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자조사업을 학교체계의 일부로 포함했다는 것이다. 자치, 자조, 자전이라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중시한 베어드는 학교는 구호기금이 아닌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아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동일한 학비와 기숙사비를 내야한다는 원칙을 숭실중학에서 대학까지 일관되게 적용했다. 자조사업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학비를 벌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벌충할 기회를 제공했다. 베어드는 이러한 학비 정책이 학교재정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조선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의 도덕적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노동에 대해 비성경적 견해가 지배하는” 조선사회를 “노동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실제 숭실대학의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학비를 내고

94~103쪽.

21) 정준영, 앞의 글, 213~240쪽.

노동 없이 학교를 다녔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조부에 소속되어 하루 반나절 노동에 참여했다.<sup>22)</sup>

설립초기 숭실대학의 자조사업은 선교사의 업무를 도와 자질구레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교를 청소하는 잡일들에 불과했지만, 1900년 죽담식 인쇄기를 들여오고 1902년 미국의 목재상 데이비스로부터 5천 달러를 기부받아 기계창을 설립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비교적 풍부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108평 규모의 부지에 T자형 공장으로 조성된 기계창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목공도구, 공작도구, 연관도구, 단조도구 등을 갖추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계창은 1907년 공장의 전문관리인이자 학생들의 기술교사로 맥머트리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작업장으로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맥머트리는 미연방정부 소속 록 아일랜드 병기제조창 현장 주임으로 근무한 바 있는 정통 기술자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술 작업 공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배치하고 판매 사업을 기획할 수 있었다. 맥머트리는 정밀한 기술 작업을 다루는 만큼, 엄격하고 단호하게 학생들을 다뤘는데, 학생들은 그를 다소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스코틀랜드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23)</sup>

학교 재정의 중요한 일부를 책임지는 독립채산 수익사업체이자 학생들의 기술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장으로서 기계창의 첫 번째 수익사업은 인쇄업이었다. 인쇄물 제작은 교회와 학교에서 항상 필요한 작업이었다. 낡은 죽담식 인쇄기로 쉴 새 없이 전도문서, 각종 교회 인쇄물들을 찍어내려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했다. 점차 숭실대학과 중학의 교재들도 기계창의 주요한 인쇄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렇듯 학생들에 의한

22) 리처드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 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숭실대학교 261~266쪽; 『Baird to Ellinwood』, Jan, 12, 1897, 류대영, 앞의 책, 122~123쪽에서 재인용.

23) 기계창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안나 데이비스 산업부 혹은 상점(Anna David Industrial department 혹은 shop)으로 불렸다. 데이비스는 기계창에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보냈고, 그의 기부금은 기계창에 생산도구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또한 그는 기계창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은 교회의 장로 맥머트리를 기계창의 관리자로 추천하고 그가 기계창에 부임한 이후에는 퇴임할 때까지 봉급을 지급했다. 김형남, 『숭실학교 기계창』,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평양숭실 회고록』, 숭실대학교, 2017, 44~45쪽; 이원, 『맹로법과 기계창』, 숭실대학교, 2018, 65~68쪽.

인쇄 작업이 제법 안정성과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종종 평양지역의 중요한 문서 인쇄들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특히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평양지역에 배포할 독립선언서 중 일부가 송실대학 기계창에서 밤을 새워 제작되었다.<sup>24)</sup>

송실대학이 성장함에 따라 기계창에 참여하는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기계창이 담당할 수 있는 작업 범위도 목공, 단조에서 주물가공, 유리가공, 연관공사, 심지어 학교 건물의 증·개축까지 점차 넓어졌다. 기계창은 주로 학교 설비 및 평양 장로교 구내 공관들에 필요한 가구, 무쇠공작품 및 도금, 유리가공품들을 제작하고 건물의 기술설비들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점차 다른 감리교 학교들, 평양 거주 서양인들도 기계창의 주요 고객으로 포함되었다.<sup>25)</sup> 1928년에는 전기방직기가 도입되어, 직조, 재단이 기계창의 작업 범위에 포함되었고, 곧 교복을 제작·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sup>26)</sup> 베어드는 선교본부에 보내는 연례보고를 통해 기계창이 송실대학과 송실중학에서 재정 확보와 학생들의 기술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더 많은 분야가 생기고 더 전문화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감독자가 기술개발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에 흥미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만의 전문화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베어드는 이러한 기계창이 학생들의 자조를 위한 공간이지 직업교육장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성실성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해 본격적인 작업 윤리가 작동하는 공장체계를 갖추고자 했다.<sup>27)</sup>

기계창에는 송실대학과 중학의 학생들이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함

24)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90년사』, 송실대학교, 1897, 142~143쪽.

25) 김형남의 회고에 따르면, 종종 송의여전, 서양인들의 가옥 등에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감리교 학교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의뢰해오기도 했다. 김형남, 앞의 글, 44쪽; 『평양선교지부 보고서, 1922』, 이원, 앞의 책, 126쪽.

26) 『평양선교지부 보고서-기계창, 1928-29』, 위의 책, 132쪽.

27) 리처드 베어드, 송실대학교뿌리찾기 위원회 역, 『윌리엄 베어드』, 264쪽; 베어드, 『1914-15년 연례 보고서』, 김용진 옮김, 『윌리엄 베어드 선교리포트』 II, 40~41쪽.

게 일했는데, 주로 대학생들은 설계, 제작 등 전문적인 일을 맡았고, 중학생들은 초보적인 목공작업이나 작업보조, 제품 배달 등을 담당했다. 전문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기계창은 1925년 전일 노동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인 공장이자 기술훈련소의 체계를 갖췄다. 전일 노동 제도는 학생들이 사실상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기계창에서 하루 종일 기술 작업만 수행하고 임금 받아 그 중 일부를 이후 학업을 위한 학비를 적립하는 노동방식으로 이를 통하면, 학생들은 나머지 수학 기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첫해 12명이 지원했는데, 점차 그 수가 늘어 1929년에는 25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sup>28)</sup> 이러한 전일 노동은 학생들의 작업 효율성은 높이고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기계창의 수익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완숙한 기술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기계창은 학생들의 기술 작업장이자 일종의 공업 상점으로 엄밀하게는 대학 학제에 포함된 학과 교육은 아니었다. 그러나 숭실전문이 운영되는 동안 거의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기계창에서 만나질 혹은 온종일 노동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에게 기계창은 학교의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학습 공간이 되었다. 숭실 중학과 대학을 거쳐 1930년대 프랫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숭전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한 공학자, 김형남의 회고에 따르면, 중학시설부터 기계창에 소속되어 유리제품 배달, 목공작업 등을 했고,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철공부로 옮겨 주물, 협관 작업, 책상과 의자 제작을 담당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자신의 유학을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큰 지침이 되었다.<sup>29)</sup> 더욱이 숭실대학은 기계창에서 익힌 기술들이 단순히 관리감독자인 맥머트리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기술 공정을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기계설계 수업을 숭실전문의 정규수업 교과로 개설했다. 맥머트리가 직접 과목을 맡아 주당

28) 1925년 학생들은 전일제 노동으로 매달 208엔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8~9엔 정도를 선교부에 지불하고 150엔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예치금으로 적립했다. 맥머트리, 『평양선교기부보고서, 1928-1929』, 이원, 앞의 책, 132쪽.

29) 김형남, 앞의 글, 46~48쪽.



6시간 강의를 진행했다.<sup>30)</sup>

사실 기계창에서 다루는 기술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발명 혹은 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된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창의 오래된 기술들이야말로 근대전환기 평양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들이었다. 1907년 서북지역 계몽운동가들의 학술지인 『서우』는 「절실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국권회복을 위해 공업발달에 기여할 실업과 학생 90명 정도를 당장 일본 등지로 1~2년 정도 유학을 보내 각종 기술을 배워오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자금 모금을 독려했다. 그들은 이러한 “실업이야 말로” 어떠한 “고등학문들 보다 시급”하고 주장했다.<sup>31)</sup> 논설에 나열된 기술 목록들은 59개 분야에 이르는데, 농업, 상업, 수산, 광업 등 산업별 분류와 각종 식품제조 분야를 제외한 유리제조, 목공, 전기, 주철, 철공장, 연와, 재봉, 모직 등 각종 공산품 제조 기술들은 공업상점 기계창에서 생산되고, 이미 기술자 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즉 기계창은 서구의 오래된 기술들을 평양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기술로 탈바꿈시켜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기술들은 평양사회에 적합한 것들이었고, 서구에서 사용될 때와는 다른 의미와 쓰임, 중요성을 가졌다.<sup>32)</sup> 자본과 설비, 규모의 한계로 기계창이 직접 포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평양 지역 선교구내 혹은 기독교 학교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기계창이 관여해 지어진 새로운 서양식 건물들이 평양사내에 들어섰고, 기계창에서 생산한 서양식 공산품들이 평양사회에 유통되고 있었다. 나아가 『서우』는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에 토대한 공업화론을 소개했는데, 기술을 각기 다른 쓰임이 있는 바, 기술적 토대가 부족한 한국에서 대공업 발달만을 기대할 것이

30) 맥머트리, 『기계창에 대한 보고서, 1913-14』, 이원, 앞의 책, 113~115쪽.

31) 논설, 「절실한 의견」, 『서우』 6, 서우학회, 1907; 회원 옥동규, 「실업의 필요」, 『서우』 8, 서우학회, 1907; 이승교, 「실업론」, 『서북학회월보』 17, 서북학회, 1908.

32) 에저튼에 따르면, 기술들은 단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단지 전파되거나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사용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와 용도, 때로 형태 변화까지 포함하는 “크레올(creole)” 기술이 된다. 에저튼은 기술의 역사가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와 보수, 실제 사용자들의 의한 사용과 변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에저튼, 정동운, 박민아 옮김,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 휴머니스트, 14~16쪽, 93~112쪽.

아니라 “자급·자영한 공업을 개량”하는 것으로부터 공업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었다.<sup>33)</sup>

이렇듯 평양지역사회에서 기계창의 역할은 1920년대 말 농학을 전공한 북장로교 선교사 루츠(Dexter N. Lutz)가 부임해오고 농업 관련 사업들은 추가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부임 후 여러 해의 준비 및 지역사회 조사 과정을 거쳐 루츠는 평양지역의 토양에 적합한 농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재배한 농작물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공방법, 특히 통조림 제조법을 보급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과채 통조림과 햄 가공품들은 기계창의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되었다. 또한 각종 농기구들이 기계창의 단조, 주물 작업 등을 통해 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졌다.<sup>34)</sup>

#### 4. 근대산업도시 평양과 숭실전문학교의 학제재편

지역사회와 공명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공급하고자 했던 숭실전문교의 노력은 초기 전공구별이 없던 학제에서 벗어나 점차 학과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배에 따르면, 숭실대학은 아직 연합대학 체계를 유지하던 1913년 정도부터 학제를 문과와 이과로 분리 운영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sup>35)</sup> 당시까지는 물리학을 전공한 벡커와 천문학을 전공한 루퍼스가 아직 숭실대학에 재직하던 시절이었고, 모우리가 지질학을, 그리고 애니 베어드가 생물학 강의를 담당할 수 있어 과학연구를 위한 교수진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곧 연합대학을 둘러싼 갈등과 일련의 사태 끝에 이과의 핵심 교원이자 감리교 선교사였던 벡커와 루퍼스가 연희전문으로 옮겨갔고, 숭실대학의 이과교육은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숭실대학은 수학을 전공한 북장로교 선교사 파커(William P. Parker)

33) 일문번역, 『공업화에 대한 의견』, 『서우』 7, 서우학회, 1907.

34) 맥머트리, 『1928-1929 평양선교지부 보고서-기계창』, 이원, 앞의 책, 132쪽; 맥머트리, 『1931-32 평양선교지부 연례보고서』, 같은 책, 139쪽.

35) 김근배, 앞의 논문, 108쪽.

를 새로운 교원으로 임용했지만, 그들의 공백을 완전히 메꾸기는 어려웠다.<sup>36)</sup>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숭실대학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민간이 설립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전문학교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반포하자 그 이듬해 학제를 문과와 이과로 구성하고 총독부에 인가를 요청했다. 이때 총독부는 “성서연구와 같은 종교 교과외의 개설과 운영은 제국의 학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립학교들의 종교 교육에 대한 제약을 가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숭실대학은 인가를 포기하고 1925년까지 사립각종학교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숭실대학은 이과를 포함한 전문대학 체제로 운영되었고, 1921년 3명의 이과계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매년 30~40명 정도 이과계 신입생을 모집했다.<sup>37)</sup>

숭실대학은 이과 교수 채용에도 적극적이었는데, 각각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과 네브라스카대학(University of Nebraska)에서 화학 학위를 받은 김호연과 이용규를 1920년과 1921년 차례로 화학교수로 임용한데 이어 1923년과 1924년에는 노스웨스턴대학 출신 솔트우(David L. Soltau)와 숭실대학 이과를 졸업한 강영환을 물리학 교수로 채용했다.<sup>38)</sup> 또한 숭실대학은 이과 강좌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1924년 기숙사 한 동을 응용화학 실험실로 전환했는가 하면, 1926년에는 국내외 기독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 새로운 과학관을 건립하고, 초대형 현미경을 비롯한 각종 실험 장비들을 확충했다.<sup>39)</sup>

당시 숭실대학에서 이과를 책임지던 모우리가 선교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36) 숭실대학이 교과 연합대학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숭실대학은 감리교 비용으로 건설한 과학관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안종철, 앞의 글, 240~275쪽;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평양숭실 회고록』,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7, 190~193쪽.

37)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민족과 함께 숭실 120년』, 97쪽; 『입학소개』, 『조선일보』, 1924년 3월 24일, 3쪽; 『지방학교안내』, 『동아일보』, 1925년 5월 29일, 5쪽.

38) 『김호연씨 환영회』, 『동아일보』, 1920년 9월 17일, 4쪽;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평양 숭실회고록』,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2017, 190~193쪽; 이지하, 『소일도·소열도』, 숭실대학교, 2018, 11~12, 35~36쪽; 강영환은 이후 일본 동북계대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농과 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경숙, 앞의 글, 110~111쪽; 김근배, 앞의 글, 110~112쪽.

39) 숭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100년사』, 숭실대학교출판부, 1987, 337~338쪽.

따르면, 숭실대학이 염두에 둔 학제구성안은 응용화학 실험에 특화된 것이었다.<sup>40)</sup> 이렇듯 숭실대학이 응용화학 분야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보다 평양의 공업화가 기존 연초, 정미, 제분, 정미, 양화, 피혁, 양말, 목물, 연화 등 소비재 중심의 소규모 경공업에서 전기, 고무, 염직 등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재편되고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숭실대학교 화학실험실은 평양 소재 화학 산업체들에게 신뢰할 만한 성분 및 기능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였다. 고무 무역업을 하던 영신양행은 1921년 직접 고무공장을 설립하기에 앞서 숭실대학교 화학실험실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품질 및 상품성 모두 유망하다는 결과지를 받은 바 있고, 화학교수 김호연과 이용규는 몰산장려 운동의 일환으로 각각 저렴한 대동강 잉크와 색선명도를 높인 고급 잉크 모란잉크를 개발해 상품화하기도 했다. 즉 숭실대학의 이과 설립 계획은 순수과학으로서 과학기술 지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양사회의 새로운 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1)</sup>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정책이 종교 교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숭실대학도 다시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 시도했다. 이때도 숭실대학은 문과와 이과 두 개 학과 체제로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과는 설비 불충분, 교원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되고 문과만 1925년 숭실전문학교로 공식 승인을 받을 있었다.<sup>42)</sup> 숭실전문학교는 한동안 이과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과학관을 건립하고 실험 기자재를 확충하는가 하면, 1926년까지 “청원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이과 신입생 30

4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김용진 옮김, 『평양숭실대학 역사자료집 IV 선교자료 I』, 2018, 154~156쪽.

41) 『평양 소재 공장 조사』, 『동아일보』, 1920년 8월 29일, 4쪽; 『공업장려를 위하여』, 『동아일보』, 1921년 12월 25일, 4쪽; 『제산업장려』,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 4쪽; 『모란잉크 신발명』, 『조선일보』, 1923년 8월 29일 4면; 『김씨잉크제조』, 『동아일보』, 1922년 7월 12일, 4쪽; 『모란잉크』, 『동아일보』, 1923년 6월 17일 4쪽. 평양 공업화에 대해서는 오미일,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휘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410~445쪽.

42) 『승격한 숭실대학』, 『조선일보』, 1925년 5월 29일, 2쪽. 김근배에 따르면, 일본이 전문학교 교원자격으로 요구하는 대학 졸업은 미국의 학제에서는 석사 학위를 의미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만 취득한 경우 전문학교 교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김근배, 앞의 글, 11쪽.

명을 모집했으나, 문과가 숭실전문학교로 인가된 이상 이과를 비인가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물리학 교수 솔도우와 강영환이 총독부의 인가 반려 직후 사임했고, 화학교수 이용규와 김호연도 1927~8년 사이 화학실험실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sup>43)</sup>

1928년 숭실전문학교는 학제개편 계획을 이과 대신 농과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결정은 현실적으로 과학기술 교육 시행을 위해 총독부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논의한 결과, 농과가 더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sup>44)</sup> 이를 위해 숭실전문은 기존 과학 분야 교수진 중 전임교원자격을 갖춘 모우리, 파커, 강영환을 농과로 전환배치하고, 8명의 교수진을 더 초빙해 제법 규모가 큰 농과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때 숭실전문은 처음부터 전문학교 인가를 염두에 두고 전문학교 교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했는데, 장로교 선교사로 1922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오하이오 주립 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 농학 석사 출신의 루츠,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각각 콜로라도 대학(Colorado Agricultural College)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명재억과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훈구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들이었다.<sup>45)</sup> 또한 숭실전문은 기존 과학관 및 실험 기자재를 모두 농과로 이전하고, 6개 건물을 증축하는 한편 보통문 밖에 8만평의 원예농장과 대동간 건너에 4평의 축산농장까지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을 거쳐 숭실전문은 1931년 4월 총독부에 증과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전문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기존 문과가 4년 과정이었던 데 반해, 농

43) 『평양입학안내』, 『조선일보』, 1926년 2월 9일, 1쪽.

44) 이과 설립 계획을 포기하며, 숭실전문은 농과와 함께 공과 설립을 계획했다. MIT에서 공업관리학을 전공한 오정수를 임용했으나, 결국 농과 설립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숭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함께한 숭실 120년사』, 145~146쪽.

45) 이경숙은 총독부의 까다로운 전문학교 전임교육 자격 조건 때문에 이과 교수들이 모두 미국유학출신이었던데 반해 농과는 대부분 일본 유학생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앞의 글, 113쪽. 1934~5년 사이 4명의 교수진이 더 확충되어 숭실전문이 폐교되기 전까지 농과에서 활약한 교수진은 총 15명이었다.

과는 3년 과정이었다. 이러한 송실전문의 행보에 지역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해박한 지식기반을 갖춘 “농군을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간 식민지 조선에는 농업관련 고등교육기관이 “관립 수원고등농림 정도” 뿐이라 인재양성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제 송실전문 농과가 설립되어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의 실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sup>46)</sup>

송실대학 농과는 기존 이과의 학제를 이은 덕에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 실습까지 폭넓은 학과과목들을 충실하게 갖출 수 있었다. 수학, 물리, 무기화학, 유기화학, 식물학, 지질학 같은 기초과학들을 1학년 수업에 주로 배치해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면, 2, 3학년으로 갈수록 기초과학의 비중은 줄고, 작물, 비료, 양잠, 축산, 가축사양, 농산제조, 수의학, 농업경영학 등 각종 농학 이론과 실습수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sup>47)</sup> 이러한 탄탄한 농학 연구의 토대 구축과 더불어, 송실대학 농과는 농업지식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농과 대학 설립 이전부터 루즈를 필두로 지역 순회강연을 벌이는가 하면, 농업강습소를 개설해 지역민들에게 농업 지식을 가르쳤다. 농민들의 위한 월간지 『농민생활』의 창간도 송실전문 농과의 중요한 지식전파 노력 중 하나였다. 농과 교수들은 이 잡지에 농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지식, 새로운 농법 소개, 농민계몽의 중요성 등 농민들과 관련한 각종 논설들을 실어 농업지식이 보다 넓게 확산하는데 기여했다.<sup>48)</sup>

결국 송실전문은 이과 대신 농과를 설립함으로써 충실한 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식전파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이전 시기 송실전문대학이 추진한 이과 설립안은 사실 응용화학 실험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순수과학을 교육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역에 토대한 대학이

46) 『송실농과전문성의 성립』, 『조선일보』, 1931.3.7; 송실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편, 『민조과 함께한 송실 120년』, 143~152쪽; 윤정란, 앞의 글, 2020, 239~243쪽; 김근배, 앞의 글, 113~117쪽.

47) 기본 교양 과목으로 매학기, 성경과 수신, 체조를 배웠고, 1,2학년 때는 영어와 일본어를 배웠다. 송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송실대학100년사』, 1997, 293쪽.

48) 박태일, 「1930년대 평양 지역문화와 『농민생활』-북한 지역사연구 4」,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275~277쪽; 송실대학교 120년사편찬위원회 편, 『평양송실회고록』, 155~156쪽; 『민족과 함께한 120년』, 149~150쪽.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명하며 계속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하나의 방책이었다. 따라서 숭실전문은 이과 설립 시도가 좌절된 후에는 그것을 고수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해 농과 설립 안으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수 있었다.

## 5. 나가며

숭실대학이 실시하고자 했던 과학기술 교육은 분명히 과학기술인재를 길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근본주의에 충실한 선교사로 일관되게 비세속 교육을 고수한 베어드가 토착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와 그 안에서 봉사할 지도자를 길러낸다는 목표로 대학교육체계를 구상했을 때, 과학기술 교육은 서구의 합리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학문으로서 교양교육이면 충분했다. 다만 베어드는 기독교대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계속해서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을 길러낼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대학은 성경 교육은 물론 과학기술 교양교육에 이르기 까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과학적 사고를 좋아하고, 과학적 합리성 혹은 실험적 방법론을 신뢰한 베어드의 개인적인 학문성향도 숭실전문의 초기 학제에서 기초과학 분야가 충실하게 배치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학교에서 철저히 세속교육을 배제하고자 한 베어드의 교육관은 어떠한 기독교 공동체의 토착교회도 지역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 연합대학을 둘러싼 갈등 끝에 숭실대학이 그 지위를 잃고, 베어드가 교장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숭실대학은 기독교인들의 위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공동체 교육이라는 원칙을 지켜냈고, 조선총독부의 종교금지에 대응해 사립각중학교로 남아 있는 길을 선택했지만, 대학이 어떤 지식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승실전문의 기술 훈련소이자 공업 상점이었던 기계창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기계창에서 다루는 기술들은 서구사회에는 이미 오래된 기술에 불과했지만, 평양사회가 필요로 하는, 당시 평양에 가장 적합한, 적정 기술이었고 평양사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기계창의 사례는 그동안 발명과 혁신 중심의 기술사에서는 종종 간과되어온 오래되고 낡은 “사용, 유지, 보수”의 기술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승실전문의 농과 설립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승실대학이 그 사전 작업으로 농과강습소를 열었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부임한 루츠가 지역을 순회하며 평양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을 소개하는가하면, 통조림 제조법 등 생산품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판매 방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는 점이다. 평양 지역민들은 발전된 영농방법이 근대 산업으로서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승실대학이 그러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결국 승실대학은 이학과 대신 농과를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애초 승실전문의 학제 재편이 지역사회와 공명하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만큼,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다면 유연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는 총독부의 실업교육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 김근배, 『송실전문의 과학기술자들 - 이학과와 농학과 개설,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한국근현대사연구』 9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 101~131쪽.
-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 지성사, 2005.
- 김자중, 『1920-45년간 식민지 조선의 '전문정도' 사립각종학교에 관한 연구 - 설립 배경, 현황,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교육사연구』 26-2, 교육사학회, 2016.
- 리처드 베어드, 송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옮김, 『윌리엄 베어드』, 송실대학교 출판부, 2016.
- 류대영,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재검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 박규환,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 그 뜻과 결 - 일제강점기 이훈구의 농촌운동과 '송실'』,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7.
- 박태일, 『1930년대 평양 지역문학과 『농문생활』 - 북학 지역문학사연구 4』,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2015.
-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 90년사』, 송실대학교출판부, 1987.
- 송실대학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편, 『민족과 함께한 송실 120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 \_\_\_\_\_, 『평양송실 회고록』,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평양송실대학 역사자료집 I 학사 일반』, 2017.
- \_\_\_\_\_, 『평양송실대학 선교자료 IV 선교자료 I - PCUSA 자료를 중심으로』, 2018.
- \_\_\_\_\_, 『평양송실대학 선교자료 V 선교자료 II』, 2018.
- 안종철, 『아더 베커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1.
- 오미일, 『1910-1920년대 공업발전단계의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7, 한국사연구회, 1994.
- \_\_\_\_\_,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2014.
- 오지석,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 - 평양 송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윌리엄 베어드, 김용진 옮김, 『윌리엄 베어드 선교 리포트』 I, II,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6.
- 윤정란, 『근대전환기 지역공동체의 변화: 기독교와 접속한 평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21.
- \_\_\_\_\_,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식물학의 도입과 확산의 토대 구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2,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20.
- 이경숙, 『일제강점기 송실전문학교 교수진의 구성과 네트워크』, 『사회와 역사』 130, 한국사회사학회, 2021.
- 이 원, 『맹로법과 기계창』, 송실대학교 2018.
- 임종권, 『한국기독교 선교와 근대 학교 설립 과정』,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5,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1.
-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혜안, 2001.
- 전찬미, 『식민지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설립과 과학 교육』, 『한국과학사학회지』 32-1, 한국과학사학회,

2010.

정준영,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교육정책과 미션스쿨: 중·고등교육의 경우』, 『사회와 역사』 72, 한국사회사학회, 2006.

\_\_\_\_\_, 『식민지관학과 민족사학의 사이 - 중앙불교전문학교와 식민지전문학교체제』, 『사회와 역사』 128, 한국사회사학회, 2020.

주익중, 『평양 조선인 기업가의 경영이념』, 『경제사학』 19, 경제사학회, 1995.

허재영,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할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미』, 『어문학』 147, 한국어문학회, 2020.

데이비드 에저튼, 정동욱, 박민아 역, 『남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 휴머니스트, 2015.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 The Christian Community of Pyongyang and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of Soongsil College

Sunsil Oh\*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Soongsil College, which adheres to the evangelical doctrine, implemented a Christian community centered on Pyongyang, an area well-infused with Christian culture, and made an effort to supply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by the community for that purpose. Soongsil College, which envisioned an independent Christian education system that encompasses a wide area in the northwestern part of Pyongyang, allowed admission only to Christian believers, and gave a lot of weight to Christian doctrine and liberal arts essential for seminary admission. As it is operated by sponsorship and support to the local community, it was intended to provide the knowledge,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d by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Soongsil College built and operated “Anna Davis Industrial Shop” from the beginning of its establishment to educate students on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help students become self-reliant through technical work. As an affiliated institution that best meets the founding purpose of Soongsil College, which is to nurture hardworking and sincere Christians, it has taken an important part in the school operation and curriculum establishment process. In addi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that Soongsil College envisioned while attempting to establish a science department in the 1920s and

---

\* Institute for Korean Christianity Culture, Soongsil University

1930s was in fact specialized in the field of chemical engineering, which w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needed for Pyongyang to grow into a central industrial area in the northwest region. Eventu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department was canceled due to the refusal of the Colonial government, who had been reluctant to teach science and technology in colonial Korea. But as the direction was shifted to agriculture and establishment, Soongsil College was able to meet the needs of the local community.

**Key words** : Soongsil College, the Christian College, Anna Davis Industrial shop, Education of technology and Science, Old technology